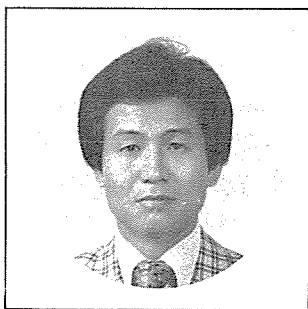


일반계 고교 직업과정의
활성화 방안

문교부의 교육 과정령에 의하면 일반계 고교에서도 직업 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는 과거에도 허용되어 왔고 현재에도 허용되고 있다. 대학 입시가 과열되고, 재수생이 누적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반계 고교의 직업 과정 운영이 한때 강조된 바 있었다. 실습 시설 미비, 교사 부족, 학부모 및 학생들의 참여 기피 등으로 인하여 직업 과정 운영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이러한 경험으로 말미암아 일반계 고교에서의 직업 과정 운영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힘든 것으로 믿고 있다.

교육제도의 개선과 社會的 與件조성이 관건



장 석 민

〈한국교육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계 고교의 직업 과정 운영이 국가 사회적으로 재강조되고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대학 졸업 이상의 고급인력의 50% 이상이 사실상 심각한 실업 상태에 직면한 반면, 기능 인력의 부족은 산업 발전(특히, 제조업 부분)에 심각한 타격을 안겨 주고 있다. 우리의 교육체제가 고급 인력은 필요 이상으로, 그것도 질적으로 저하된 인력을 양산하고, 산업 발전의 초석이 되는 기능 인력은 매우 부족하게 양성·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의 양적 팽창 및 질적 저하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중·고등 학교 교육 또한 사회적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하게 느껴진다. 대학에 진학할 능력도 없고, 직업적 기능도 없으며, 취업할 의지도 없는 청소년들이 매년 30만~40만명씩 중·고등학교로부터 사회로 배출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대량적 배출

은 기능 인력 부족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청소년 비행화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한마디로, 학교 교육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문교부는 최근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과정운명을 확대·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국가·사회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균형있게 양성 공급해야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 발전에 생산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인간을 육성해야 된다는 점에서 우리의 교육 체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되고 개혁되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도 재검토되고 개혁되어야 한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직업과정 도입은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개혁조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개인적 필요에 좀더 부응하고 사회적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계 고교에 있어서도 직업 교육이 체계적으로 도입되고 활성화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진다. 일반계 고교에 직업과정을 도입하고 운영을 활성화하는데 따른 제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의 발전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해 본다.

학교 교육의 기본 전제

우리 사회에서 일반계 고교는 당연히 입시 준비 교육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오히려 직업 교육을 하는 것이 부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관습으로 인하여 일반계 고교에 있어서 직업과정 운영은 앞으로는 많은 난관을 극복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려면 먼저 일반계 고교를 포함한 초·중등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립되어야 한다.

초·중등 학교는 교육법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민주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 자질함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사회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태도를 육성하려면 학교가 그에 맞는 교육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특히 일반계 고교의 경우는 입시 준비만을 위한 교육 기회를 획일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입시위주 교육은 법규상의 교육 목적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민주 교육의 근본 원리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고 소망되는 교육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민주 교육의 원리에서 보면, 일반계 고교를 포함한 오늘날의 학교교육은 크게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일반계 고교라고 해서 모두가 대학 교육의 적격자로서, 대학 진학을 희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학 교육 적격자로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민주 시민 교육과 더불어 입시준비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진학 포기자나 취업 희망자에게도 그에 맞는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비록 진학 포기자나 취업 희망자가 소수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그들에게 필요한 교육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민주 교육의 원리에 맞추어 보면, 학교가 이들을 위하여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는 마땅히 수행해야 될 책무를 여러가지 이유를 내걸어 지금까지 회피해 왔다고 판단된다. 국가도 학교가 이러한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감독하는 기능을 앞으로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학교교육이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야 된다는 원리는 근대교육이 성립된 이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에는 학교 교육의 공공성 및 사회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학교 교육의 사회적 영향력이 그만큼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인간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육성되고 배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사회는 좀더 많은 기능 인력을 요구하고 있고 좀더 성실하게 일하는 근면한 인간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의 이러한 요구와는 동떨어진 인간형과 인력을 양성 배출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학교교육의 현실이다. 한마디로, 오늘날 학교

교육은 사회적 타당성을 상실하고 있다. 학교 교육이 사회적 타당성을 높이려면 사회적 요구 분석을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목표, 내용, 방법 등 모든 면에서 학교 교육은 앞으로 사회적 요구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직업 과정 운영의 장애요인

앞에서 서술한 민주 교육의 원리와 사회적 타당성의 원리를 전제로 받아들인다면 직업 과정 운영은 일반계 고교에서도 당연한 교육적 책무의 하나로 이해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입장에서 일반계 고교의 직업과정운영을 당면한 학교 교육의 책무로서 생각하고자 한다. 이러한 책무수행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장애요인들을 지적해 본다.

첫째는 교육 과정의 경직성과 획일성의 문제점이다. 우리나라의 교육 과정은 문교부에 의하여 결정되고, 학교는 그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시도 교위는 교육과정운영에 대하여 지도 감독한다. 학교에서의 교육과정운영은 경직된 틀과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게 되어 있다.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다양한 제공이 불가능하다. 학교가 학생들의 필요와 지역 사회의 요구에 기초하여 교육 과정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직업교육의 요구는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그리고 지역별 산업여건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다양한 요구가 반영되려면 교육 과정을 학교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럽다. 어차피 중앙에서는 각 지역의 모든 요구와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는 세세한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지만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국가 수준에서 모든 것이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교육 과정형태에 의해서는 교육과정의 다양화가 불가능하다. 학생 개인의 다양한 직업적 요구와 지역사회의 요구가 만족되는 교육과정이 운영될때 직업과정은 성

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그렇게 되려면 교육과정이 먼저 경직성과 획일성을 탈피하여야 한다.

둘째는 교원의 문제이다. 다양한 직업 과목을 제공하려면 그에 맞는 전문성이 있는 교사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현행 교육과정에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외국어과의 실업·가정과정에서 선택 과목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각 전공 과목별 교사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제한적 선택 과정마저도 학교 단위의 선택이 되고 있으며, 학생들에게는 사실상 강요된 선택이 되고 있다.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과목이 제공되려면, 이러한 과목들을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려면 교사의 양성제도, 자격증제도, 교사의 활용 방법, 보조교사제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는 학교의 시설·설비의 문제점이다. 직업과정이 운영되려면 실험·실습 및 실기 실습을 위한 시설·설비 및 교구는 필수로 요청된다. 그러나 현재 일반계 고교는 대부분 이러한 시설·설비가 없으며,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 막대한 투자가 소요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시설·설비를 학교가 모두 갖추어야만 교육이 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실습과 실기·실습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강구되어야 한다.

넷째는 진로 교육의 문제점이다. 직업 과정 운영이 성공하려면 학생들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하여 과정의 이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각자의 소질과 적성 및 능력에 관한 객관적 자료, 직업 세계-자격증 제도, 취업 여건, 임금, 승진 제도, 인력 수요의 장기 전망 등-에 관한 자료에 기초하여 스스로 진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직업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진로 교육이 단계적으로 그

이 글은 지난 10월 19일 대한공업교육학회가 「우수인력양성을 위한 공업교육발전방향」 주제로 개최한 1990년도 국제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것임. <편집자註>

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진로교육이 고등학교단계는 말할 것도 없지만 초·중학교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장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직업 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일한 진로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학교의 내적인 교육여건—교육과정, 진로지도 전담교사 양성 및 배치 제도 등—도 개혁해야 되지만, 외적인 여건—사회적 여건으로서 임금격차의 합리적 조정, 기능인의 승진 및 우대 풍토, 직업교육을 위한 계속 교육제도 등—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여건 개선을 전제로 학교에서 진로 교육이 단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학생들의 직업과정 선택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직업과정의 이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어느 학년 어느 학기에서든지 직업과정의 선택이 이루어지고, 적응이 될 수 있도록 진로 지도의 서비스가 강화되고, 직업 과정 운영이 개방되도록 해야 한다. 직업과정 운영 이전에 진로교육이 체계적으로 도입되고 운영되어야 하겠다.

다섯째는 행·재정적 지원 체제의 문제점이다. 직업과정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교육과정의 개혁, 교사 확보, 시설·설비 확충 및 시설·설비 활용 방안 개선, 타 기관과의 원만한 협력관계 유지, 산학 협동의 원만한 추진 등이 순조롭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당국의 예산지원, 장학지도, 전문적 조언, 법적 뒷받침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이 적시에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관료적 행정체제하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장·지원적 행정체제를 갖추고, 직업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 문제를 당국이 깊이 인식하고 일선 학교를 돕는 진지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직업과정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언

앞에서는 직업과정운영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지적해 보았다. 직업과정운영이 확대되

고 활성화되려면, 장애 요인들을 제거하고, 필요한 조치사항들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직업과정 활성화를 위하여 새롭게 도입하고, 개혁해야 할 정책적 방향에 대하여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교육과정의 다양화 및 운영의 자율화

학생들의 요구 및 지역사회의 산업·경제적 요구에 부응하려면, 직업과정은 물론이고 전체 교육과정이 다양화되지 않으면 안된다. 현재와 같이 중앙집권적으로 획일화된 교육과정을 가지고서는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기회제공이 어렵다. 학교가 궁극적으로 최종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운영하는 자율권을 가져야 한다. 문교부는 국가 수준에서 필요하고 강조되어야 할 사항 및 공통적 사항을 규정하고, 시도 교위는 이를 토대로 지역적 여건 및 지방 정부의 필요 사항과 강조점을 통합하여 교육과정 지침 및 자료를 개발 제공하고, 일선 학교는 이를 토대로 학생 및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구체적 요구를 반영하는 교육과정을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학교의 결정으로 교육과정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이를 상급기관에 협의·승인받음으로써 최종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학교는 교육 과정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인사, 산업계 대표,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 교육과정 전문가, 교육위원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소망스럽다. 교육과정위원회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소수학생 및 개별 학생을 위한 교육과정의 처방에 대하여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위원회는 사실 학원 및 직업훈련기관, 위탁교육, 그리고 전문가의 개인지도 등에 대하여 심의 결정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교육 과정이 획일성과 경직성을 탈피하여 다양화되려면 학교가 자율성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교육과정을 결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교원의 다양화 및 전문화

학생들의 요구가 충족되려면 직업과목들이 다

양화되고 전문성있는 교사에 의하여 지도되어야 한다. 많은 직업과목의 교사들을 최대로 확보하고 직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직업교육의 다양화 및 전문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이러한 방안으로 첫째는 고교 연합체제를 도입 운영하는 것이다. 인근 고교간에, 예컨대, 일반계 고교 연합형, 일반계+실업계 고교 연합형, 실업계 고교 연합형 등으로 학교를 연계 운영함으로써 실업 가정과 및 직업과목 교사수를 최대로 확보하고, 교육기회를 최대로 확대하는 것이다.

둘째는 실업 가정과 또는 직업과목 교사를 교육구청 단위 또는 좀더 세분화된 학교구역-몇개의 학교가 위치한 일정 구역-담당으로 발령을 내고, 구역의 모든 학교에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교별로 좀더 많은 수의 교사를 확보하고, 보다 전문적으로 가르칠 수 있게 고려하는 것이다.

셋째는 강사 제도를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산업체 현장에서 또는 직업 분야에서 일정 경력을 쌓고 기술자격이 있는 전문 인력을 정시제 강사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각 분야의 자원 인사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는 보조교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현재도 실기교사제도가 있고, 조교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체육기능지도에 있어서 코치 제도는 거의 보편화되어 있다. 이와 같이 예체능 분야 및 기술분야의 직업 과목지도에 있어서 정교사 책임하에 다양한 보조교사 및 보조인력이 활용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는 위탁 교육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인근 실업계 고교 및 직업 훈련 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거나 사설 전문 학원 및 유관 교육 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소수를 위한 전문 분야의 교육을 위해서는 위탁교육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위탁교육이 보편화될 수 으려면, 각종 사설학원, 개인지도학원 등 유관교육기관이 제도적으로 육성되고, 전문성과 공

공성이 확보되는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위탁교육이 가능한 모든 유관교육기관에 대한 실태 조사 연구와 육성책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설·설비의 확대 및 효율화

직업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기본시설·설비 및 실습 기자재가 충분히 확보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기본적인 시설·설비는 확충되어야 마땅하나 당장 실업계 고교 또는 직업 훈련 기관처럼 실습장 및 기자재를 갖추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첫째는 지역 공동 실습소(area vocational center)을 확대 설립하고,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각 지역별로 실습소를 설치하여 공동 활용하게 되면 투자를 줄이고, 시설의 활용율을 극대화하며, 지도의 전문성과 능률성도 기대할 수 있다. 각 지역별 사정을 감안하여 단일 종목 공동 실습소, 또는 종합 공동 실습소 등을 설치하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되겠다.

둘째는 직업 훈련 기관 및 실업계 고교 등 국가의 기존 시설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법 제도의 개정 및 타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의무화함으로써 그리고 주야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시설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산학 협동을 강화하여 산업체의 시설을 최대로 활용하고, 현장에서의 교육적 이점을 최대로 살리는 것이다. 현장 실습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학교에서는 이론교육과 기초 실습만 하고, 산업체에서 기능실습을 완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현장 적응력도 높이고 시설·설비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로교육의 단계적 체계화

학생들 스스로가 객관적 자료와 판단에 의하여 그리고 장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직업과정을 선택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국민학교 및 중학교 단계부터 체계적인 진로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한다. 그리고 일반계 고교에서도 학년별로 단계에 맞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첫째는 진로교육을 각급 학교 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각 교과에서는 일반 직업세계에 관련된 자아발달을 촉진시키고, 예비직업교육(prevocational education)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질과 능력에 따라 자연스럽게 직업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다.

둘째는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한 집단지도 또는 집단상담, 개인지도 또는 개인상담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다. 소질과 적성, 능력 등에 대한 객관적 자아 평가와 직업세계에 대한 올바른 정보위에서 합리적으로 진로를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학교의 진로교육센터가 설치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각 학교의 진로교육센터는 동시에 그 학교의 진로교육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자료를 생산 또는 조달 공급하는, 그리고 각 과목 교사들에게 전문적 조력(professional assistance)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셋째는 각급 학교의 진로교육센터가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진로지도에 필요한 제반검사 도구 및 정보자료를 연구·개발·공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문교부에서 진로 교육 담당 독립 부서를 두며, 전담 연구기능-예컨대, 한국교육개발원 같은 곳에 연구기능을 부여하고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등으로-을 강화하며, 시도 교육위원회의 이에 대한 장학 지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는 고등학교에서의 진로지도를 강화하여 매학년별로 학기별 특별진로 지도시간을 설정 운영하고, 입시준비로부터 이탈되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직업과정을 선택하도록 하며, 언제라도 직업 과정에 진입할 수 있고,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특별지도를 해야 한다.

이와 같이 세심한 진로지도가 이루어질때 직업 과정은 성공적 운영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원 체제의 확립

직업과정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지원체제가 정비되고 강화되어야 한다.

첫째는 문교부 및 시도 교위의 여러가지 행·재정적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관료적 감독체제를 벗어나서 전문적 조장 지원 행정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개별 현장 학교에 기초한 문제파악과 지원행정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상급 교육 행정 기관이 앞으로의 지원행정에 특히 유념해야 될 영역만을 제시해보면, 첫째는 진로교육에 관한 것이다. 일선 학교의 진로교육이 단계 일선 학교의 진로교육이 단계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전문인력, 연수, 자료 및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둘째는 직업교육에 대한 예산, 교육과정운영 및 자료, 시설·설비 설치 및 활용 등에 대하여 지원하고 전문적 조력을 하는 것이다.

셋째는 산학 협동에 대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과 프로그램을 개발 공급하는 것이다.

넷째는 위탁 교육 등을 위하여 각종 유관 교육 기관들을 학교의 보조교육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 정비하는 것이다.

다섯째는 학교가 타부처 및 여러 유관기관과 교육을 위하여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여섯째는 각종 직업분야의 전문인력 및 자원인사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원의 효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 울적 활용을 위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 해주는 것이다.

직업과정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앞으로 행·재정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영역을 예시적으로 지적해 보았다. 행·재정적 지원이 전문화되고 강화되어야 하겠다.

여러가지 장애요인이 극복되고, 활성화를 위한 제반조치가 적시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일반계 고교의 직업과정 운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

과소비와 허례허식 나라경제 좀먹는다